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야당과 협치하겠다”

보수-진보 결집 초반빙 혈투
헌정사 최소 득표차 0.73%p
광주 12.72%·전남 11.44%
역대 보수 후보 중 최고 득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후보의 당선은 확정됐다.

〈관련기사 2·3·4·6면〉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1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1614만여표)를 얻었다. 득표 차는 0.73%포인트, 24만7000여 표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무효표 30만7000여표보다 적었다.

이 때문에 개표를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 80만3000여표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수정당 후보로는 광주와 전남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낙선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광주 84.82%, 전남 86.10%로 윤 당선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정도로 ‘호남 표시’가 겹집했다.

하지만, 서울과 영남 등 다른 지역에서 이 후보가 석패하면서 호남 표시 결집이 빚을 바꿨다.

이번 대선 결과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해 초접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양 강 후보를 중심으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했고, 지역·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사회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 향후 국민 통합과 협치가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일단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를 통해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겠다”며 “의외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어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고, 이날 당선증을 교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으며, 낮 12시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아침에 대통령님이 전화를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인수 문제를 잘 지원하겠습니다”고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님도 좀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시간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또 양측은 인수위 문제 등으로 ‘핫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 당선인, 호남인사 ‘탕평책’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 화두로 ‘국민 통합’을 제시함에 따라 호남 인사 중용 및 호남 지역 대선 공약 적극 추진 등 탕평책 제시 여부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국민의힘 당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통합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집권 초기, 국정 운영의 화두로 국민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전남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리한 점과 영남과 호남 등 지역별 표시가 확연히 갈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위한 어떠한 탕평책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는 당장 인수위 및 내각 구성 등에 있어 호남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 국민통합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선 기간 제시한 호남지역 공약의 조기 추진 등도 거론되고 있다. 말이나 행동으로 국민통합의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지역 일부 대선 공약의 경우, 구체적 재원 마련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실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을 위한 호남 인사 중용 등이 구두선에서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내각 등에 끼워 넣기 식으로 1-2명의 호남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무늬만 호남’인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기용,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세력은 보수 진영에 호남 인재 풀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윤 당선자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영과 지역을 넘어 인재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자가 전·현직 여권 인사들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고개숙인 이재명

“제가 부족해서 패배해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자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시간이 되자 품에서 원고를 꺼냈으나 거의 보지 않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어조로 마지막 인사와 위로를 건넸다.

그는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 있다”면서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시간이 되자 품에서 원고를 꺼냈으나 거의 보지 않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어조로 마지막 인사와 위로를 건넸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는다”면서 “지금의 이 선택도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발현이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일지, 국민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날 이 후보와 통화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전주에 대한인이 밝혔.

이 후보는 윤 당선인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스 - '조선의 뒷담화'	▶14·15면
프로야구 시범경기 관련 포인트	▶18면
행복한 동행 - 슈기글라이더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수완 전시장 & 서비스센터 2022년 3월 Grand Open!

■ 딜러십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암대로 1041(학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프론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603(학정동) 20층(수완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광주 제2 딜러십(오르 역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